

화장실신문

14대 총여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 좋은 충돌!

화장실 신문 4호 (2002.4.15)

안녕하세요. 14대 총여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입니다. 벚꽃과 황사바람이 요 몇 주 동안 우리를 기쁘게 또 슬프게 하고 있네요. 이제 다음주면 중간고사입니다. 연세의 여학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구요. 다들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마치시기를 바래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대동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기분좋은 움직임

4월의 총여학생회는요. 5월에 있는 행사준비에 바쁘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5월에는요, 5월 1일 Mayday를 시작으로 두 가지 큰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5월 첫째주 목요일에는, 여성노동에 관한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에요. 소망으로는 '밥·꽃·양'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월 둘째주에 진행될 행사는 '취업대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끔은 여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미 취업을 하고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회의 분위기를, 사회의 많은 난관들을 즐겁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난관을 알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가볍게 건너쳐주는 법을 배우기로 해요. 또 전 씨네21 편집자이었던 조선희씨를 모셔서 영어점수나 자격증을 따는 것 외에,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세를 듣고 배웠으면 해요. 참 취업대란 행사 내내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적성검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랍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가져가세요.

나왔다! 뽕!



<<기억은 존재를 넘어 계속된다 - 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 밥·꽃·양>>

"같은 바람이 불어도 대가 여린 나무부터 쓰러집니다. 피해를 입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태풍이 휩쓸고 가면 큰 나무 작은 나무 한꺼번에 넘어져있기 때문에, 뿌리 채 뽑혀나간 나무보다는 좀 더 튼튼한 나무들만 다시 세워보려고 하지요. 복구 작업을 할 때도 약한 나무들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정리해고라는 폭풍이 남녀 차별 없이 몰아친 것 같지만, 제일 약한 고리를 제일 먼저 날려버렸습니다."

"당하는 자들의 고통도 강한 자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약한 자가 당하는 고통의 강도가 훨씬 큰데도 말입니다. 고통의 소리조차 뒷전으로 파묻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일 뒷전으로 밀린 소리들을 찾아갔는데, 그게 여성의 소리였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월간피플, 임인애 감독 인터뷰 중에서)

지난 3월 30일, 이화여대에서는 울산 현대자동차 식당 노조 아주머니들의 지난한 싸움의 과정을 담은 영상보고서 “밥·꽃·양”이 상영되었다. 98년 IMF 돌풍의 한가운데에서 정리해고의 주된 대상으로 몰려났던 그 순간과, 이후 많은 남성노동자들은 복직된 상황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며 정규직으로의 복직을 위해 싸워나간 과정들이 2시간을 조금 넘는 영화 안에 생생히 담겨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IMF 이후 먹고살기의 어려움은 흔히 이런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을 통해 설명되어진다. 하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겪는 이중의 고충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폐해’를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것만큼 관심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단순히 여성 ‘노동자’들이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어렵게 싸워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조합 내에서도 ‘여성’노조원의 지위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자존하기 위한 일과 가정 내에서 어머니/아내로서 너무도 당연하게 기대되는 역할 사이의 갈등이 어떠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식당 아주머니들의 정규직으로의 복직을 위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힘쓸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주머니들이 나체시위, 삭발시위, 20여일의 단식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에도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꾸려지는 노조는 ‘노조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 다른 노조원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가 되겠냐, 내부분열 일으키지마라’는 조직보위와 단결의 논리로서 이를 막아서려할 뿐이었다. 실질적인 생계부양자로서 일터의 중요성과, 그녀들에게 있어 일의 의미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영화에 나타난 진보적 남성노동자들의 인식수준이었다. 그리고, 섬뜩하기 그지없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다. 우리에게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에 대한 환상을 심고 있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허울 좋은 선전어구 아래에는, 밥·꽃·양의 아주머니들이 겪고 있는 직장 내 차별과 무시, 가사노동자로서의 이중부담이 숨어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몸이 너무 고단하지.. 그래서 남편이 부부생활을 요구해도 기분 좋게 응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남편이 원한다는걸 아니깐, 내 몸이 힘들지만 난 응해준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래.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라면 감정이 있어야지, 무슨 나무토막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코고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는데,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당한다'고. 원하는 대로 못해주는 게 미안하지...그래도 난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나로서 있기 위해서는 너무 필요한 것이니까. 이혼당해도, 끝까지 일할거야..”

영화 중반부에 삽입된 한 여성노동자분의 자기 고백이다.



시.원.한. 개.시.판.

총여

(학생회관 3층에 오시면 총여학생회실을 찾을수 있어요~)